

2024 Vol. 1

전국범죄피해 2022

범죄피해 실태 및 동향과 치안정책의 뉴 패러다임*

조제성 부연구위원 | 범죄학 박사, cjslife@kicj.re.kr

발행일 2024년 03월 31일 발행인 하태훈 발행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요키워드

범죄피해경험,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1인 가구, 범죄두려움, 치안정책, 범죄 예방 비용 지불 의사

* 관련보고서: 조제성 외 (2023.12),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본보고서), 조제성 외 (2023.12),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1인 가구 범죄피해 실태 관련)

- 이 연구는 국가승인통계로 전국단위 범죄피해경험과 암수범죄 그리고 범죄관련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범죄두려움, 경찰활동 등의 조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올해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범죄 피해관련 지표의 비교가 가능한 해로 관련 실태 및 동향에 대한 이슈와 특별세션으로 1인 가구 치안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 기초자료로 의미있는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분석이 실시됨
- 사회적 거리두기와 범죄피해는 명확히 폭력범죄피해 발생장소가 COVID19 이전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손괴 피해 물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전국범죄피해 2022의 특별한 이슈는 스토킹 및 이상동기 관련 중대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증가와 폭력범죄 피해 및 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저연령화 되어 간다는 시대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기조에 맞춰 이웃관계,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 등 영역(재산, 폭력, 주거침입 등)별 치안정책의 핵심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
- 1인 가구 치안정책의 구체화에 대한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제적 비용 지불의사가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범죄유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고립된 1인 가구에 대해 생활양식과 감정상태등 범죄예방의 적극성이 결여된다는 취약성이 확인되었음
- 1인 가구 치안정책이 Target Hardening 전략에 머무르지 않고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 1인 가구의 수요와 실제 시행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함

01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논의의 배경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22 기준 범죄피해조사를 정례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시기에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음
-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으로 문항의 재구성이 필요했으며, 불법촬영(몰래카메라)등의 범죄피해를 성폭력에 포함하는 등의 노력과 회상을 위한 예시가 시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암수범죄의 파악과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음
- 또한, 1인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치안정책에도 그 변화가 있어야 하는 바 올해 연구에서는 특별주제로 1인 가구 범죄피해 실태 관련 조사를 추가로 시행해 다인 가구와의 비교, 생활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특성과 치안정책의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음



표본설계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전국단위 조사로 만 14세 이상 일반국민 대상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 삼아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설계(범죄 피해경험을 추정 상대표준오차: 9.2%)되었음
- 표본 추출은 층화2단집락추출법을 적용해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로 2차 추출단위는 만 14세 이상 일반국민을 기준으로 추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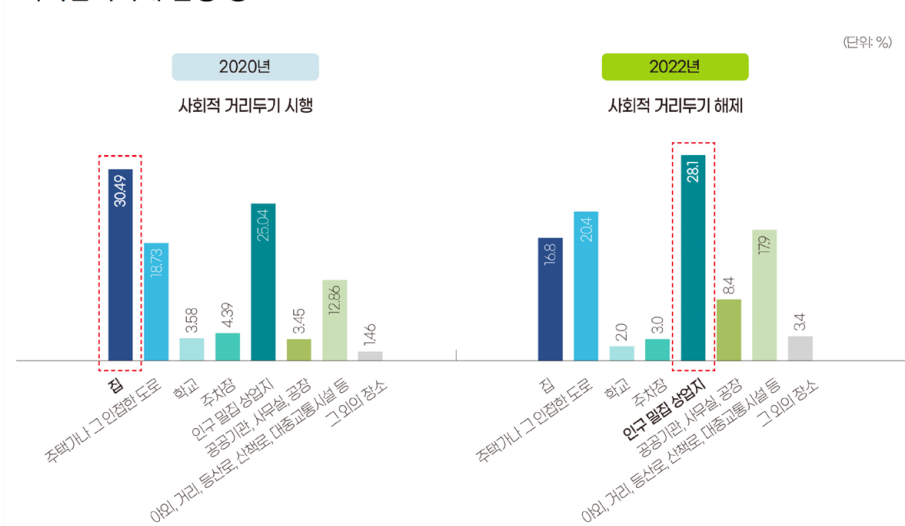
연구설계 주요내용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모수추정의 상대표준오차율이 통계청 권고 기준인 30%를 넘어 지금까지 대부분 류인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 대한 피해만 공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했음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케이스를 늘리는 방법으로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6,700여가구(13,000여명)에서 7,122가구(15,326명)으로 케이스확보가 증가될 수 있도록 설계했음
- 관련 추가 노력으로 통계청 컨설팅, 통계방법론 추가자문, 조사원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표본설계, 조사방식, 개선의견 수렴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함
- 응답자의 응답의 질에 대한 보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실제 조사에서 응답전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내 유튜브, 네이버TV에 업로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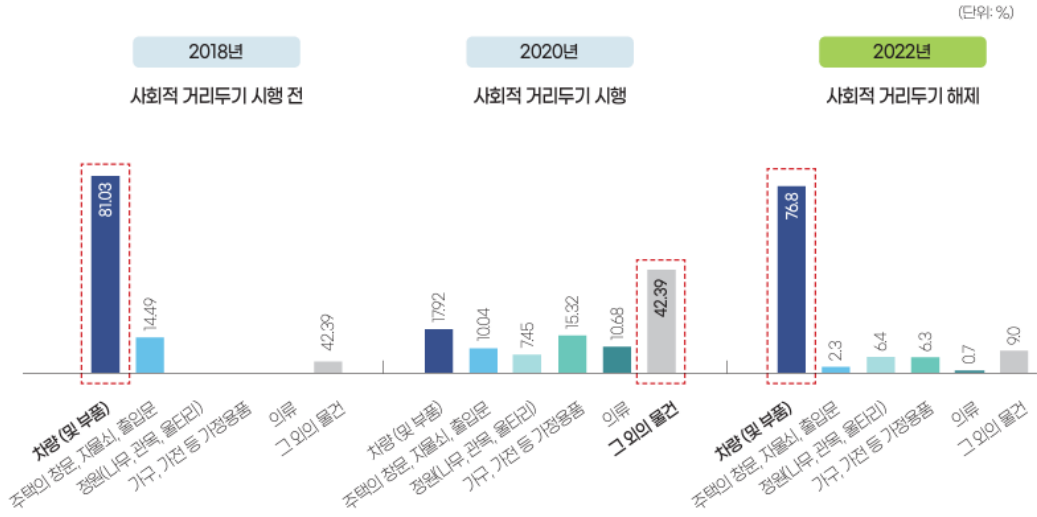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범죄피해 동향의 변화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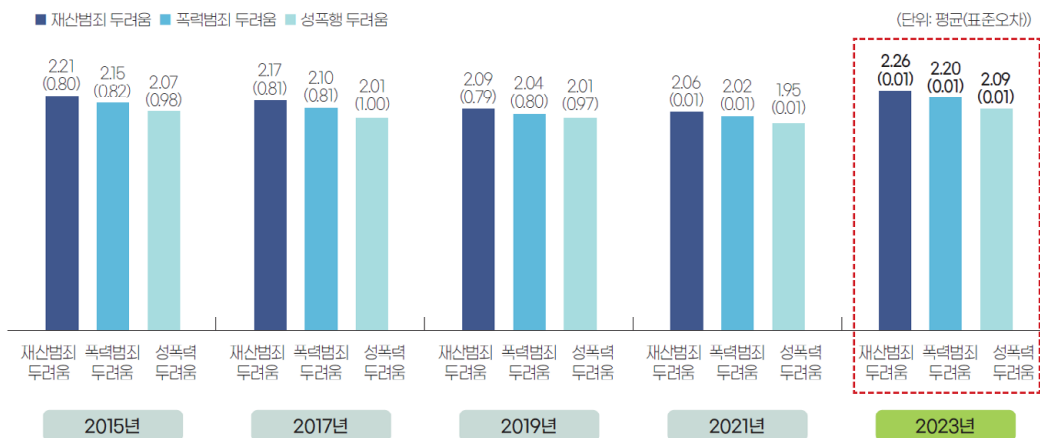
- 올해 조사는 COVID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관련된 범죄피해의 동향이 주요 연구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폭력범죄피해의 발생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에 30.49%로 집에서 발생한 폭력범죄피해가 가장 많았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연구 결과에서는 인구 밀집 상업지가 28.1%로 가장 높았음

손괴 피해 물품



- 손괴 피해 물품에서도 차량(및 부품)에 대한 손괴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의 비율을 회복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었음
-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전의 범죄동향으로 회귀하는 부분에 대한 치안정책과 예방을 위한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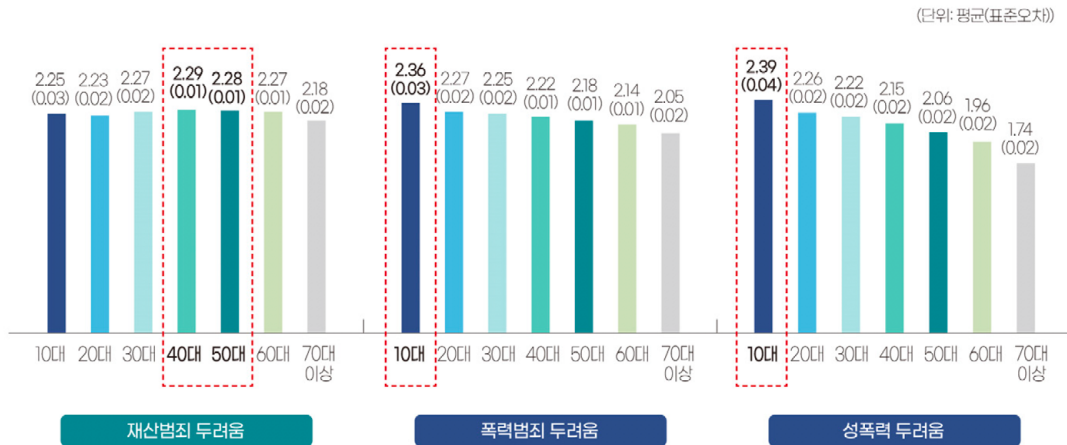
사회적 분위기와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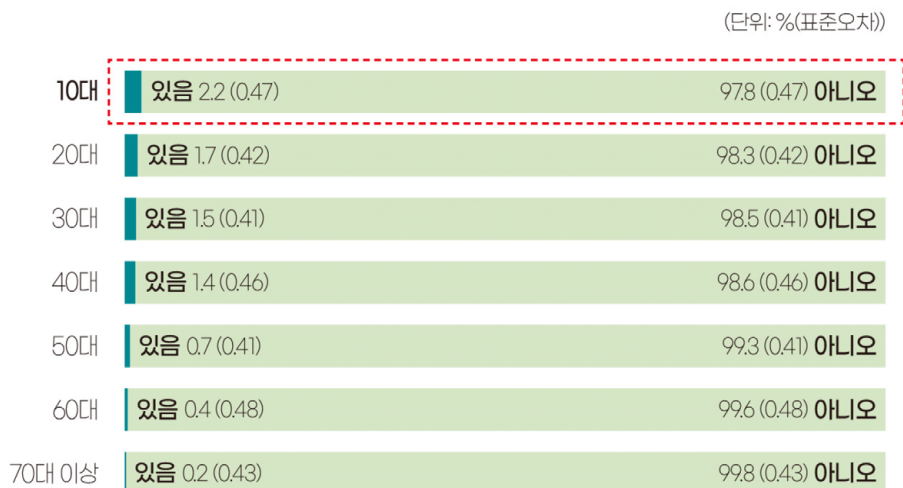
- 5개년 시계열 비교분석 결과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지난 10년 중 모든 영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올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높게하는 요인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모든 영역의 두려움이 높았던 해는 2015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폭력범죄 피해 미신고이유 중 주목할 부분은 2016년에서 2020년에 비해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고, 이는 2020년 대비 약 2배 증가되었다는 점임

- 2014년은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해”로 표현될 정도로 사건이 많았으며, 강력범죄만 하더라도 4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5월 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사건, 도곡열 열차 방화사건, 12월 부산 영아 살인사건,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 등이 발생되었고,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비율은 17.84%에 달함
- 작년 스토킹에서 비롯된 살인사건과 올해 이상동기 범죄가 범죄두려움과 국민의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범죄양상 변화(연령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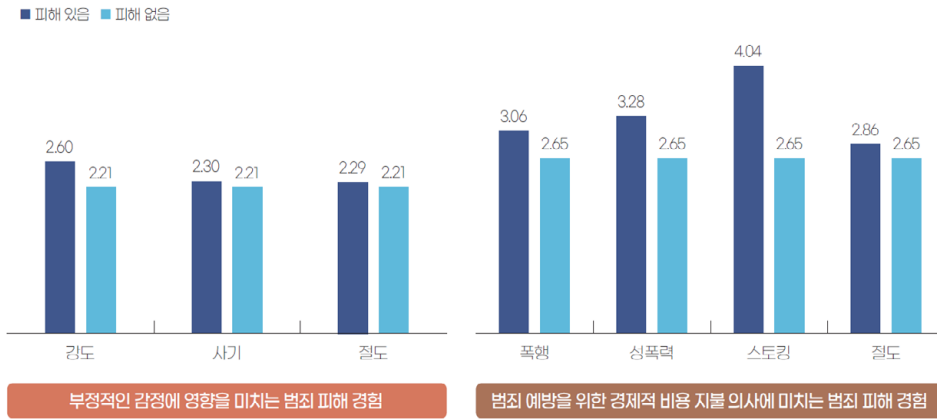


-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 중 폭력범죄와 성폭력 두려움에 10대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양상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피해경험과 직결되거나 상대적으로 미디어의 접촉이 수월한 젊은 층에서 두려움에 영향을 주기 쉬운 환경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실제 분석에서도 폭력범죄의 피해에 대해서 올해(2022년 기준) 조사의 피해경험률이 10대가 가장 높았음(아래 그래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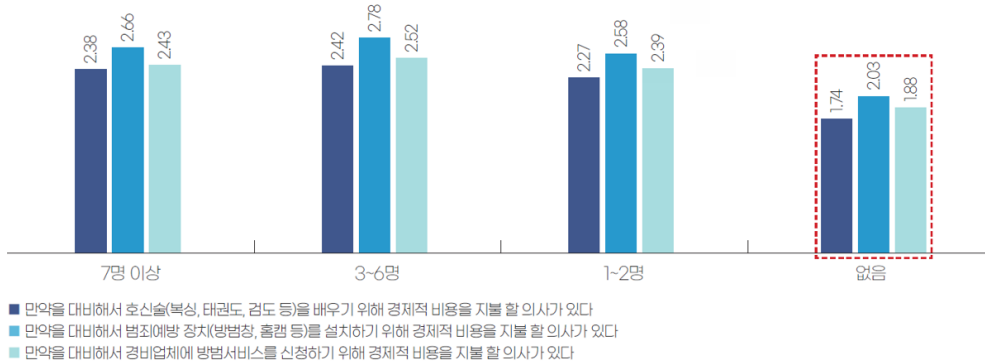
- 이러한 수치는 지난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2018년 30대, 2020년 20대, 2022년 10대로 점차 저연령화가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저연령화에 따른 범죄유형별 치안정책의 변화가 요구됨을 확인함

1인 가구 범죄피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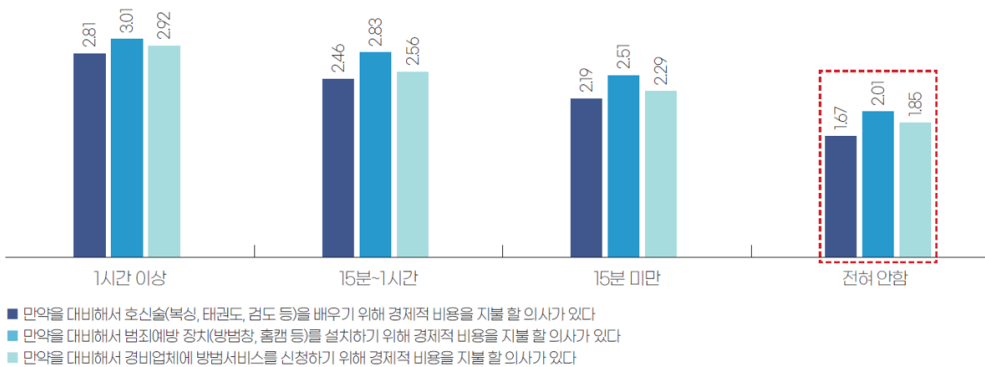


- 1인 가구는 단순히 다른 가구와의 비교만으로도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범죄피해경험은 감정상태와 범죄예방에 대한 비용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침

▶ 친한 사람 수



▶ 주변사람과의 사적 연락 시간



- 1인 가구 주요 특성
 - : 1인 가구 감정상태(10명 중 약 2명 꼴로 걱정 외로움)
 - : 1인 가구 유대감(10명 중 약 1.8명 꼴로 가족 및 친구, 사회적 유대감 낮음)
 - : 부정적인 감정상태(다인 가구 < 1인 가구)
- 1인 가구 중 외로움이 많거나, 고립된 취약한 집단일수록 범죄예방의 적극성이 떨어져 범죄피해 경험 이후 관리에 적극성을 높일 필요성이 파악됨

■ 긍정적 ■ 부정적



- 단순히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에서 필요한 치안정책과 그 효과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반증함
- 따라서, 성별, 연령 뿐만 아니라 감정상태, 고립감, 경제적수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1인 가구의 치안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4 | 정책제언

범죄피해 관련 치안정책 대응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범죄동향의 변화(발생장소, 이전 동향 회복 등)에 주목하고 경찰대응전략 수립 필요
- 사회적 분위기 및 범죄피해 특성에 따른 전략적 대응에 대한 검토 필요
- 1인 가구 치안정책의 구체화(물리적 대응 외의 전략) 및 1인 가구 유형화 검토 필요
- 고립된 1인 가구 대상 취약성 파악과 그에 대한 치안정책 수립근거 제시

1인 가구 치안정책 관련 정책제언

- 1인 가구 대상으로 범죄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지불 의사가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피해자 지원에 대해 이러한 경제적 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1인 가구와 밀접히 연결지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스토킹,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여성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성 대상의 지원정책과 예방을 위한 치안정책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함
- 고립된 1인 가구의 취약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여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 사적 연락이 적은 경우, 늦은 귀가가 드물거나 없는 경우, 생활에 불만족한 경우 범죄예방의 적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수립 및 지원제도에 대해 검토되어야 함
- 1인 가구 유형화의 구체화에 따른 치안정책 다양화 검토가 요구됨